

冬季GAURI SHANKAR

(7, 134m) 西壁을 征服

유럽·日本 遠征隊가 10여차례 企圖했던 곳

徐 廷 培

第3의 極地 히말라야 西峰

韓國山岳會 창립40주 기념 등반의 성격인 『한국 GAURISHANKAR (7, 134m) 동계서벽원정대』의 대장을 맡은 무거운 책임감과 걱정으로 잠을 설치길 3개월남짓, 작년 10월초 장비와 식량을 선편으로 보내고 동월30일 金浦공항을 떠날때는 거의 탈진상태였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一生에 한두번쯤 제3의 極地라고도 하는 HIMALAYA의 西峰에 오르고 싶은 욕구에 가득차기 마련.

3년전부터 해외원정을 위한 冬季積雪期強訓은 했었지만 막상 장도에 오르다보니 걱정이 엄습한다. 「홍콩」에서 望遠렌즈와 無電機등 약간의 장비를 마련한 후 10월31일 네팔(NEPAL)의 카트만두(CATHMANDU)로 향했다. 당초 선발대를 보낸 10여일 후에 本隊가 떠나기로 했으나 7명으로 짜였던 원정대서 2명이 사정으로 탈락, 5명과 함께 떠났다.

普州의 마차푸차레(MACHA PUCHARE) 산악회에서 나를 포함한 3명(전원이 國立公園協會智異山 慶南支部會員)과 서울의 2명(한국산악회원)이 전부였다.

31일 오후 멀리 히말라야山群을 내려다보면서 「네팔」에 도착, 빈곤속에서도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네팔인들의 선량한 모습에 감동을 느꼈다. 한달동안 “카트만두”에서 짐이 올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경비절약과 식성때문에 방이 5개되는 2층집에 세들어 야 했다.

아침저녁은 자취하고 낮에만 매식하면서 가벼운 트레이닝으로 지루한 나날을 보냈다.

인도의 「칼카타」항을 거쳐 우리가 한국에서 선편으로 보낸 장비·식량이 12월 1일 도착했으나 식품의 일부(젓갈·乾魚物·된장·고추장·해조류)와 장비의 일부가 「박스」속에 없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라도…」하는 굳은 결의로 역경을 무릅쓰고 12월 6일 아침 나를 비롯한 4명의 미니등반대(대원 1명이 도중에 귀국)는 CARAVAN을 시작했다.

「네팔」관계당국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으로 관광성에서 파견한 정부연락관 1명, 짜더 1명, 셀파 4명, 배달부 1명, 요리사 2명, 도합 9명과 고용계약을 하면서 장비지급과 규정대로 보험도 가입했다.

만약에 대비, 포터 7명분의 보험도 추가로 가입했다. 50인승의 버스로 갈 수 있는 끝. 산골 마을 JARICOTA까

지는 꼭 10시간이 걸렸다. 버스는 초만원이었다.

JARICOTA에서 짐을 내리고 숙소에 들어가니 子正이 가까웠다.

처음 본 “가우리상카”의 威容에 넋을 잃어

12월 7일아침 숙소의 베란다에서 처음 본 「가우리상카」(GAURISHANKAR)의 위용은 현지인들이 왜 土俗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는가의 설명이 필요없다.

위풍당당하고 구름위에 떠있는듯 했다. 나를 비롯한 모든 대원들이 쳐다보는 순간 시신경을 통해 감전된듯, 긴장이 심장과 다리에 퍼져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고장사람들을 40명 더 고용, 한 사람당 30kg씩의 짐을 포장해서 나누어 지게 한다. 이제부터 1주일내지 10일간의 산행이다.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것.



히말라야를 배경으로한 필자 徐廷培씨

낭만적이고 따뜻한 인간미의 네팔 사람들

「네팔」의 화폐단위 「루피」로 포타는 1인당 1일 40루피(韓貨 1천4백여원짜)이다.

해발 2천m 이상의 고지대에서 30kg의 짐을 8km~10km씩 메어주는 품삯이 고작 그것이다. 그나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것도 요행이고 1대 5 정도의 치열한 경쟁에서 선발된 사람들이라 한다.

마을을 지날때마다 산골에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나마 쓰메!」(안녕하십니까? 행운을 빕니다의뜻)란 인사말이 따뜻하다.

CATHMANDU를 떠난지 열흘만에 베이스캠프로 예정한 해발 4,850m의 산등성에 도착했다. 도중 숙영지마다 물려드는 원주민 환자에게 의약품을 나눠주고 피부병치료도 해주는 등 여장을 푸는 곳은 언제나 야전병원같았다. 정말 이사람들이 사람의 향기를 간직한채 살고있는 진짜 사람들이라 느껴졌다.

우리가 작으나마 정성껏 돌봐 주는 기쁨은 고된 CARAVAN기간중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12월16일부터 대원들은 高所증세에 시달리면서 전진베이스캠프를 두곳에 설치하기 시작하고 장비와 식량도 옮겼다 12월24일~27일까지는 무서운 강풍과 폭설로 식량저장탱크가 날아가 버렸고 3동의 텐트는 半破. 「셀파」들이 텐트와 커피, 담배등을 재보급 하지 않으면 登頂할 수 없다고 저항한다.

무전기마저 말뚝을 부리고 식량이 不足한데다 肉類는 品切이다.



가우리 상카에서 보이는
히말라야 7,000m 급의 산군

全員 登頂을 변경

YARK(高山지대 작업용으로 쓰는 소) 半마리를 포함해서 食品의 재보급이 不可避하고 일부 裝備와 연료까지 포함시켜야만 했다.

CHERINGHA 氷河위에 80~85°의 경사가 칼로 자른듯한 벽이 버티고 있다. 氷河에서 頂上까지 표고차가 2,100여m이다. 푸른 빛을 띤 암벽에 흘러내린 얼음들은 떠를 두르듯 3백여m의 폭으로 가로지른 곳도 있다.

극한 상황은 계속되고 登頂의 進行은 늦어지기만 했다. 당초 목표인 전진登頂은 모든 보급이 문제이고 「공격캠프2」까지의 식량, 연료, 장비의 추진에 소요되는 人力이 따를 수 없음이 판단된다.

최후캠프 해발 6,800m에

마지막 공격 캠프3을 해발 6,800m의 서벽에다 설치완료하고 보니 한 隊員이라도 빨리 선발해서 登頂을 서둘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한번의 등정시도에서 성패를 가름지을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식량사정이다.

崔漢助隊員(37세·마차푸차레 산악회원·국립공원협회원·지리산민간산악구조대장)에게 정상도전을 명했다.

崔漢助대원이 1月16日 오후 2시31분 西벽정상에

1986년 1월 16일 오전 8시(약천후로 출발이 늦어짐)에 「공격캠프3」을 출발한 崔대원은 동일 오후 2시31분에 정상을 정복했다. 네팔인 셀파 「An kami」와 같이……. 드디어 태극기가 얼어 붙은 그의 픽켄에 매달린 채 필러였다.

히말라야의 마봉 가우리 상카(7,134m) 서벽을 동계 세계최초로 정복한 것이다. 세계 산악국으로서 정상을 자부하는 日本의 습한 등반대들이 일곱번에 걸쳐 도전했다가 사상자만 내고 물러섰던 西壁. 本遠征隊에 앞서 유럽의 佛·獨·伊를 비롯한 무

려 열아홉번의 遠征중 불에 미국산악인 2명만을 품에 안아주었을뿐 인간의 접근을 매물차게 거절했던 GAURI SHANKAR의 山神이 영하35℃를 밑도는 혹한속에 그의 가슴을 우리에게 열어준 것이다.



「가우리상카」 서벽을 정복한
崔漢助 대원

「당신들 미쳤느냐」고

CATHMANDU에서 등반준비를 정신없이 하고있을 때 우리속소를 예고 없이 찾은 유명한 세계적 산악 리포터 「에리자베스」(Elizabeth Hally) 씨는 「당신들 미쳤소? 한국山岳人の 투지와 정열은 높이 사지만 겨울철에 그 山의 西벽을 공격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요, 서벽이 아닌 어떤 루트라도 아직 겨울철에 등정을 시도한 팀도 십수년동안 없었다」면서 걱정하고 충고하던 그녀의 새파란 눈빛이 뇌리를 스친다.

등정을 마치자 「베이스 캠프」를 철수할 때마다 비닐봉지, 버려진 캔, 가스통 등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워 다섯箇의 푸대에 담아 힘들게 지고 내려오는 「셀파」들……이들의 참된 행동 또한 이번 등반중 잊을수 없는 충격적인 일.

「네팔」은 山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HIMALAYA라는 高山준령과 그와같은 알뜰한 「셀파」들이 있기때문에 永遠한 것이라는 안도의 기쁨도 안고 돌아왔다.

[筆者: 85~86 한국가우리상카동계원정대장·韓國國立公園協會智異山慶南支部長·山岳會 마차푸차레會長]